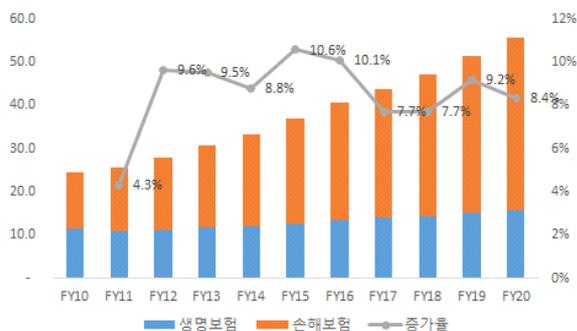


**요약**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모두 취급하는 상해, 건강, 질병보험 등 제3보험은 2010년 이후 연평균 8%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0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산한 전체 보험산업 내 비중은 25.1%까지 확대됨. 최근 제3보험은 동일 연령대의 집단을 리스크 단위로 세분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구조 변경 등 질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향후 제3보험시장 성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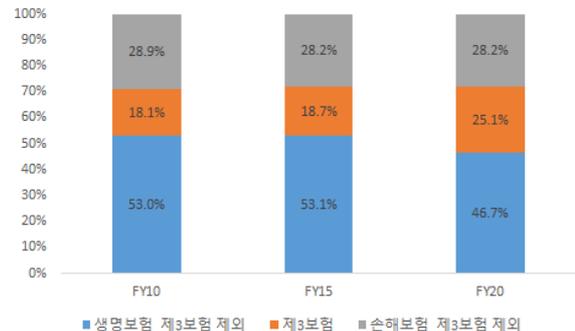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모두 취급하는 상해, 건강, 질병보험 등 제3보험은 2010년 이후 연평균 8%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산한 전체 보험산업 내 비중 또한 2010년 18.1%에서 2020년 25.1%까지 확대됨
  - 제3보험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8.6% 성장하였으며, 업권별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동기간 각각 평균 3.4%, 11.8% 성장하면서, 주로 손해보험이 제3보험 성장을 이끌어 온 것으로 나타남
    - 제3보험 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비중은 2010년 각각 46.4%와 53.6%로 손해보험이 소폭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각각 28.5%, 71.5%로 손해보험 비중이 크게 확대됨
  - 우리나라 보험시장을 제3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 제3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나누어 볼 경우 제3보험의 전체 보험산업 내 비중은 2020년 25.1%로 나타나며, 이는 2010년 18.1%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임

〈그림 1〉 제3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2〉 제3보험, 제3보험 제외 생명보험, 제3보험 제외 손해보험 비중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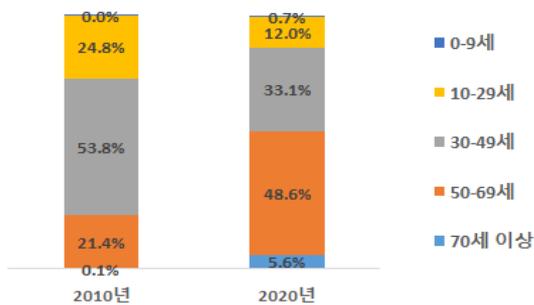
○ 제3보험은 생명보험의 정액보상 특성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특성을 함께 지닌 보험을 의미하며,<sup>1)</sup> 1997년 제3보험에 대한 생·손보 겸영이 허용되었고, 2003년 생명보험의 실손보상이 허용됨

- 제3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보험으로 분류하지만, 의료비·치료비·특별비용 등과 같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실손보상)하는 보험금 지급 방식도 가능함
-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건강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구성됨
- 1997년 6월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상해, 질병, 건강, 장기간병보험의 생·손보 겸영을 허용한 이후 생·손보 모두 주계약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생명보험의 제3보험상품에 대한 실손보상이 허용됨<sup>2)</sup>

○ 제3보험의 성장은 건강 및 질병보험 신규가입이 많은 연령대인 30~40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연령층 및 저연령층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치아보험 등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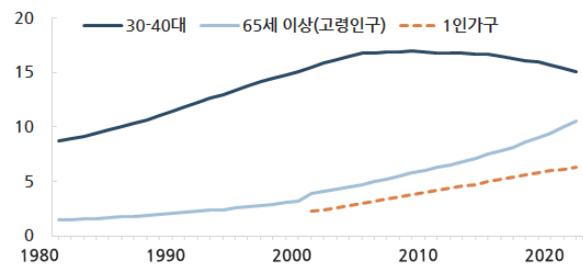
- 2010년 기준 생명보험의 건강 및 질병보험 신계약 건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40세(53.8%)로 나타났는데, 동 연령대 인구는 2008년부터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 확보에 불리한 상황이었음
- 그러나 보험산업은 지병 등으로 그동안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의 가입이 용이하도록 간편심사보험(SI보험)을 확대하고, 어린이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등 고연령층 및 저연령층 신규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보장대상을 확대해 왔음
  -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50세 이상 생명보험 건강 및 질병보험 신계약 건수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10세 이하 신계약 비중 또한 0.7%로 소폭 증가함
- 또한 실손보험에서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기 때문에 치아보험과 같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신규 보장 수요를 발굴함

〈그림 3〉 생명보험 연령별 제3보험 신계약 건수 비중 (2010년 vs. 2020년)



자료: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각 연호

〈그림 4〉 30~40대 인구, 65세 이상 인구, 1인 가구 추이



자료: 통계청

1) 오병국(2012. 10. 2), 「제3보험의 이해 1: 제3보험의 개요」,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 최원·김세중(2014. 6),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기타보고서』, 보험연구원

-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양상은 향후 제3보험 시장 확대요인과 위축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보험 시장의 성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 제3보험의 주요 수요층인 30~40대 인구와 저연령 인구의 감소는 수요 위축 요인이나, 기대수명 증가를 인지한 개인이 고령기의 보장확대에 나선다면 제3보험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간편심사보험(SI보험) 확대로 이미 가입한 경우가 많고, 비싼 보험료가 신규 가입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 증가는 제3보험 수요 위축요인일 수 있음<sup>3)</sup>
  - 또한 1~2인 가구의 경우 가족을 통한 부조를 기대할 수 없고 유족에 대한 보장 수요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후 소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1~2인 가구의 증가는 제3보험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제3보험시장은 정부의 공적 복지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이외에도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함
  
- 최근 제3보험 시장에서는 동일 연령대의 집단을 리스크 단위로 세분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구조 변경 등 질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향후 제3보험시장 성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A손해보험회사는 인슈어테크 회사와 협업을 통해 건강검진 자료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건강등급을 세분화하여 보험료를 등급화하는 상품을 개발했으며, 가장 높은 건강등급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 일반소비자에 비해 40% 가까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B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암보험 면책기간인 90일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구조의 암보험상품을 출시하여,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보장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차별화한 신상품을 출시함
  -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제3보험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다다를 경우에도 소비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리스크 세분화, 맞춤형 보장 플랜 제공,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구조 등과 같은 기존 상품과의 질적 차별화가 제3보험시장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제3보험은 공적의료보장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고령화 심화에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은 제3보험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 혁신 등 질적 경쟁력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3) 임태준·김세중(2022)은 동태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여 인구 고령화가 건강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고령화에 따른 보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동공급 및 소비자축 의사결정 변화, 70세 이상 인구의 가입률 정체 등으로 2030년 이후 건강보험의 수요 감소를 예상함